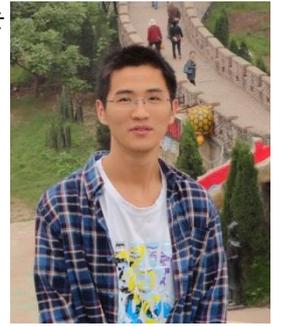


Tim은 기독교적 배경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어려서 주일학교를 갔었던 경험이 있는 드문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발길을 끊었다가, 대학원을 시아먼으로 오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갈급함이 생겼고, 2010년 여름에 저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에 있었던 캠프에서 체험적으로, 아버지를 새롭게 만난 후,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리더형제입니다.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전, 교수님께 특별 양해를 구하고 MT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Kama는 작년 11월에 친구를 따라 그저 호기심으로 찾아온 순박하고 착한 시골 아가씨. 이번에 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그저 아침에 QT시간을 통해, 조금씩 더 그분께 가까이 가고픈 마음이 커져간다... 아주 조금씩 욕심도 줄고, 질투도 줄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행복해졌다는 친구는 혹시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 걱정 하면서 이번 단기에 지원했습니다.

엘시. 전임으로 이번 일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비자와 비행기 표, 편지와 사전 준비. 청소와 밥하기. 갑자기 전혀 안 하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슬퍼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아주 즐겁습니다. ^^



Tony는 작년에 태국에 이어 두번째 MT, 이번에 졸업하면 법원에 취직 하게 돼서,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렵겠다고... 토니는 최근까지 두 개의 직장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금 대학원 실습으로 하고 있는 큰 무역회사에서는 친구에 대한 대우가 좋고, 월급도 많고, 무역법 관계 일들을 맡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일도 쉬운 반면, 고향에 있는 법원에서 일하는 것은 고되고, 어렵고, 월급도 적다고 ...가장 내키지 않은 것은- 제 생각에 ^^- 여기를 떠나야 하니까요....

결국 친구는 어려운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곳이 좋다고. 어떤 일들은 너도 어쩔 수 없이, 압력과 비리에 굴복해야 할 일도 있지 않을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압력이 있는 일들은 크고 대단한 일들이고, 아마도 그런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거랍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법관의 개인 판단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을 거라고 합니다. 기특하죠?

이 친구들이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가는 저희 ㄱㅎ 친구들입니다. 그 지역 현지 사오자 분들과 연결되어, 직접적인 나눔, 중국어 가르침, 공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한 달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인도 나가 친구들이 함께 가기로 해서 팀을 짜서, 대 여섯 지역으로 흩어지려고 했는데, 나가 친구들의 여권이 늦어지면서, 저희들만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숙식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지역 선생님들이 자주 상의하고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에 우리들을 받고, 배워서 다음 해는 그 곳 친구들도 나온답니다.

사명은 큰 데, 아는 것은 없고, 아는 게 없으니 용기만 넘쳐서, 친구들은 걱정도 안하고 대충 준비하고 있고, 저는 '큰일이다....' 그런 생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짜아요우(기름을 더하다라는 뜻, 훗팅의 중국말입니다.) 해주세요~